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김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한성민 Research Associate
sungmin0108.ha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7월 셋째 주

최근 일본 장기 금리 급등과 엔화 약세의 시사점

-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로 장기 금리 상승. 국채 이자 부담, 임금-물가 선순환, BOJ의 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상승 예상
- 반면, 최근 엔화 약세는 일본 재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 향후 Fed 금리 인상 기대 낮아지면서, 엔화는 완만한 강세로 전환할 전망

일본 장기 금리(만기 10년 국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5월 일시적으로 2.8%를 넘었던 장기 금리는 7월 10일에는 2.77%를 기록하며, '96년 10월 이후 3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일본의 장기 금리는 2.12%에 불과했으므로, 불과 6개월만에 66bps가 오른 셈이다.

이러한 일본 장기 금리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다. 지난 6월 30일 일본 정부는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骨太, 하네부토)의 초안을 공개했다. 방침의 핵심은 1) 명목 성장률 3% 및 실질 성장률 1%를 목표로 2) '40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서 370조엔의 투자를 집행하며, 3) 임금 상승을 지지하고, 4) 디플레이션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일본은행(BOJ)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등이다. 초안의 골자는 대체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새롭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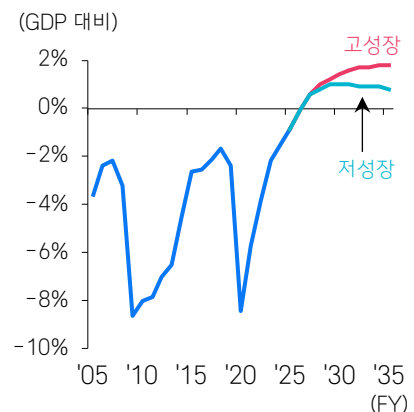
금융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지난해와는 달리 '재정 건전화' 방침이 이번 초안에서는 삭제되었고, BOJ와의 긴밀한 연계가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재정 측면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입장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명목 성장률이 3%에 달하면, '재정 건전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월 발표한 일본 재무성의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명목 성장률이 3%에 달하면 기초 재정수지(이자 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GDP의 1.8% 흑자로 전환되고, 국가부채 비율도 '25년말 199%에서 '30년에는 163%까지 하락한다.

연초 이후 일본 국채 금리 등락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재무성의 시나리오별 기초 재정수지 전망



자료: 일본 재무성, 삼성증권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40년까지 370조엔 투자 자원 조달, 국채발행 증가와 BOJ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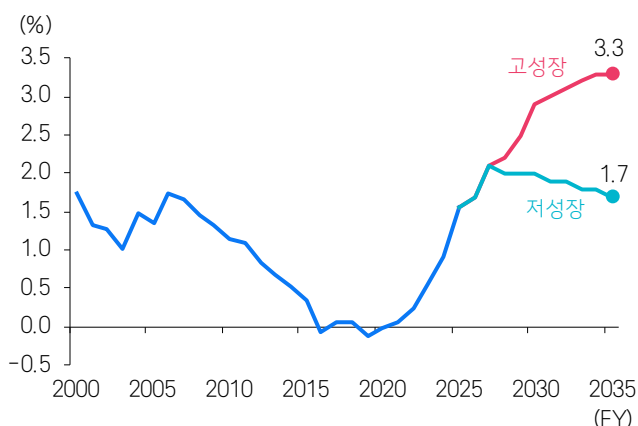
다카이치 내각의 구상이 중장기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는 타당하다. 물론 다카이치의 구상이 성공하여 일본 경제가 명목 성장률 3%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히 장기 금리는 상방 압력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보고서에도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 재무성은 장기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3.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25년과 '26년 재정 상황만 본다면, 다카이치 내각의 구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25년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는 GDP의 -0.5%로 미국(-3.5%), 영국(-3.1%), 프랑스(-3.3%)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했다. 이는 명목 GDP가 4.5% 증가하면서, 재정 수입이 5.8% 늘어난 영향이다. 이를 반영하여 재무성은 '26년 예산의 채권 의존도(bond dependency ratio)가 '95년 이후 가장 낮은 24.2%까지 하락하고, 전체 국채발행 잔액도 '25년에 비해 9조엔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 이후 자원 조달의 현실성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40년까지 투자될 370조엔 중 재정 부담분을 연간 10조엔('25년 기준 세입의 13.7%) 내외로 추산한다. 연간 세입 증가분을 4조엔으로 가정하더라도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일본의 정치 구도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 아울러, 누적된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도 걸림돌이다. '26년만 하더라도 국채 이자지급 금액은 13.0조엔으로 1년만에 4.6조엔 증가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국채의 가중 평균 금리는 '24년 0.8%에서 '26년에는 1.1%로 높아지고, 최근 수 년간의 금리 상승을 감안하면 2~3년 내 1.5%를 넘어설 전망이다. 즉, 정부 부채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만 연간 17조엔을 상회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는 투자자원 조달을 위해서 국채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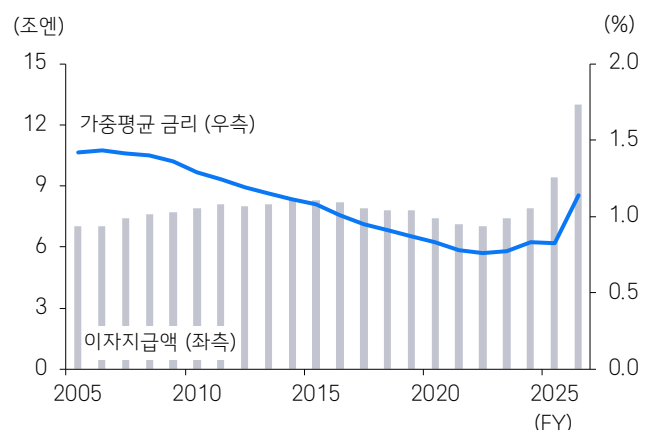
결국 국채발행 확대를 위해서는 BOJ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가 BOJ와의 긴밀한 연계를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본 방침에서는 일본은행법 4조가 언급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BOJ가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이루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BOJ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behind the curve),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그에 따라 10일 카타야마(片山) 재무장관은 연기금의 일본 국내 투자확대 방안을 언급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사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려면, 7월말 결정되는 최종안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완화된 형태라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시나리오별 일본 재무성의 중장기 10년 국채 금리 전망



자료: 일본 재무성, 삼성증권

금리 상승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 급증



자료: 일본 재무성,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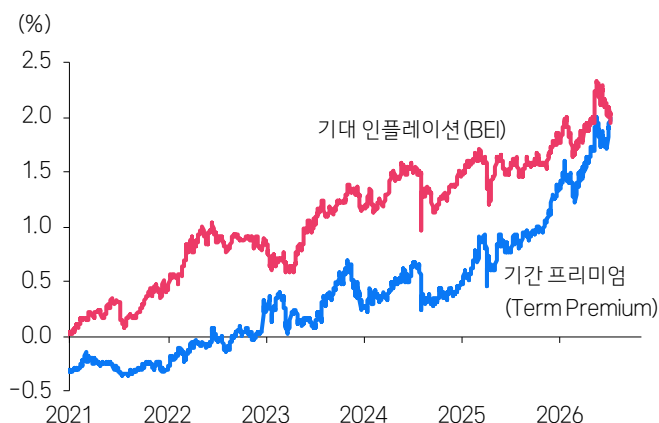
일본 장기 금리는 추가 상승 가능성 높아: 엔/달러 환율은 점차 하향 안정 전망

문제는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장기 금리는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장기 금리와 초장기 금리(만기 20년 이상)의 격차가 주요국에 비해서 큰 편이다. 7월 10일 기준 일본 10년과 30년 국채 금리의 차이는 117bps였는데, 미국은 52bps, 독일은 57bps, 한국도 21bps 등이었다. 이는 주로 BOJ의 QE 축소에 따른 초장기 국채 수요 약화에서 비롯되지만, 일본 장기 금리가 초장기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7월 7일 30년 국채의 입찰 경쟁률은 4.55배로 직전 입찰(2.94배)과 12개월 평균(3.41배)을 상회했고, 최저 낙찰 가격도 100.5엔으로 시장 예상치(99.75엔)를 상회했다. 반면, 7월 2일 10년 국채 입찰 경쟁률은 3.13배로 직전 수준(3.53배)을 하회했다(7월 2일 이후 금리 변화를 감안해도 금리가 높은 30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아울러, BOJ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장기 금리 상승 요인이다. 현재 일본의 장기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해당 수치는 물가 기대를 포함)은 1.8% 내외, 인플레이션 기대는 2.0%(10년 break-even inflation 기준) 내외를 기록하여,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10년간 정책금리 수준을 0.8~1.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당사는 '26년 춘투 임금 상승률이 5.0%로 3년 연속 5%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경제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물가 선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사는 일본의 중립 금리 수준을 1.5% 내외, 10년 국채 금리의 중장기 적정 수준을 3.0~3.5% 내외로 추정한다.

한편, 6월 30일 방침의 초안 발표 이후 엔/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았다. 6월 30일 당일 엔/달러 환율은 162.8엔으로 마감한 이후에는 일본 정부의 전격적인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대두되며 162엔 전후에서 행보했다. 또한, 경제재정성 장관이 '재정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금리를 장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정한 점도 엔화 약세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최근의 엔화 약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5월 1일 이후 엔/달러 환율은 156엔에서 7월 7일까지 3.8% 상승(엔화 약세)했는데, 해당 기간 중 금융시장에서 최대 3회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을 pricing한 영향이 크다. 이는 향후 통화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미국의 2년 국채 금리와 엔/달러 환율이 동시에 상승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7월 2일 발표된 미국 고용이 예상을 하회하며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된 이후 엔/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당사는 금융시장과는 달리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그에 따라 '26년말 엔/달러 환율 전망을 기존의 155엔(엔화의 소폭 강세)으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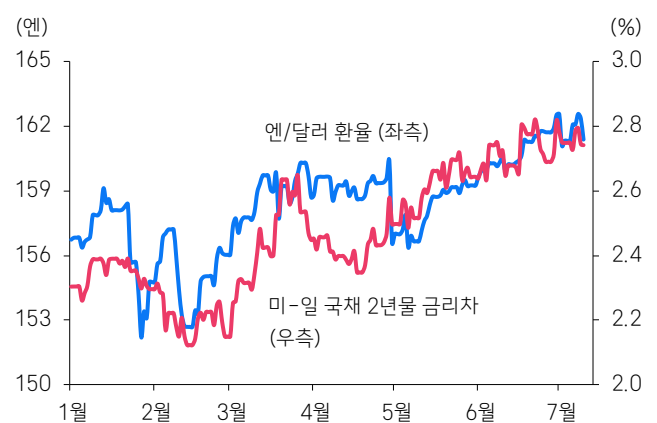
(정성태)

일본 장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기대(BEI)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Fed 금리 인상 전망으로 엔/달러 환율 상승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6월 소비자물가(14일), 소매판매(16일), 신규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와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17일) 등이 발표 예정이다. 6월 headline과 core CPI는 각각 전월 대비 -0.1%와 0.2%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각각 3.8%와 2.8%로, 5월의 4.2%와 2.9%를 정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미 국제유가가 70달러 내외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향후 headline을 중심으로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전체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3%를 기록하는 가운데, 핵심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5%의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가 하락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향후에도 민간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6월 신규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가 각각 전월 대비 13.0%와 -0.7%를 기록하면서, 미국 주택경기가 여전히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전망이다. 한편,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는 51.3으로, 6월의 49.5에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우려보다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식시장 또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함에 따라 미국 소비심리의 개선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다음 주에는 6월 수출입(14일)과 2Q GDP 및 6월 주요 경제지표(15일)가 예정되어 있다. 중국의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18.2%, 수입은 24.7%로 예상된다. 이처럼 양호한 수출입 실적은 1) 현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수출입 급증, 2) 자동차 수출의 확대, 3) 글로벌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 주의할 점은 최근 중국 수출 증가에서 반도체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의 수출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중국의 2Q GDP는 전년 대비 4.3%로 예상한다(consensus는 4.5%, 1Q는 5.0%). 이는 고유가와 주택 시장 침체로 4~5월 중 소비, 투자 등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6월에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4.6%로 선방했을 것이나, 소매판매(-0.1%), 고정자산 투자(-5.2%) 등은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결정(16일)이 예정되어 있다. 당사는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의 25bp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신현송 총재는 취임 직후 줄곧 금리 인상을 언급해 왔으며, 9일에도 금리 인상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성장률 상승의 결과이고, '27년에도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사는 한은이 올해 10월 그리고 내년 1Q와 2Q 세 번에 걸쳐 기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terminal rate는 3.5%).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이번 주 중반 미-이란 간 공습이 재개되며 지정학 리스크가 재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75달러 내외까지 반등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증시 하락, 금리 상승, 달러 강세로 반응하였다. 다만, 여전히 미-이란의 공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고, 협상 재개에 대한 일부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주 후반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risk-on 모드가 재개되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오는 14일 발표되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현재 시장은 6월 headline과 core CPI가 각각 전월 대비 -0.1%와 0.2%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각각 3.8%와 2.8%로, 5월의 4.2%와 2.9%를 정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국제유가가 70달러 내외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한 상황에서 핵심 물가로의 전이 조짐이 미미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5월을 정점으로 headline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가격 정상화와 함께 관세 효과도 점진적으로 약화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선물시장에 반영된 Fed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risk-on 모드를 유지시키는 가운데,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펀더멘털 및 금리 격차를 재차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달러화의 완만한 약세 추세 전환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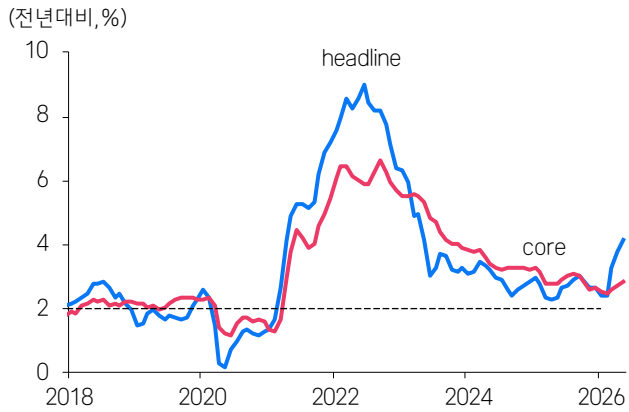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정책 지표							
한국	7월 16일	7월 금통위	-	-	-	-	• 올해 7월, 10월 인상 전망 유지
경제 지표							
미국	7월 14일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지수	95.5	95.3	중	
		ADP 민간 고용	천 명	-	21.0	중	
		6월 CPI	전월 대비	-0.1%	0.5%	상	• 5월(4.2%)를 정점으로 둔화세 전환 전망
		6월 Core CPI	전월 대비	0.2%	0.2%	상	
	7월 15일	6월 PPI	전월 대비	-0.1%	1.1%	상	
	7월 16일	6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3%	0.9%	상	• 가처분소득 증가로 양호한 흐름 유지 예상
		7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지수	35.0	35.0	상	
유로존	7월 15일	5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3%	0.1%	상	
중국	7월 14일	6월 수출	전년 대비	18.2%	19.4%	상	
		6월 수입	전년 대비	24.2%	27.4%	상	
	7월 15일	2분기 GDP	전년 대비	4.4%	5.0%	상	• 고유가 및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
		6월 소매판매	전년 대비	-0.1%	-0.6%	상	
		6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4.6%	4.5%	상	
		6월 고정자산 투자(누적)	전년 대비	-5.2%	-4.1%	상	
		6월 부동산 투자(누적)	전년 대비	-16.8%	-16.2%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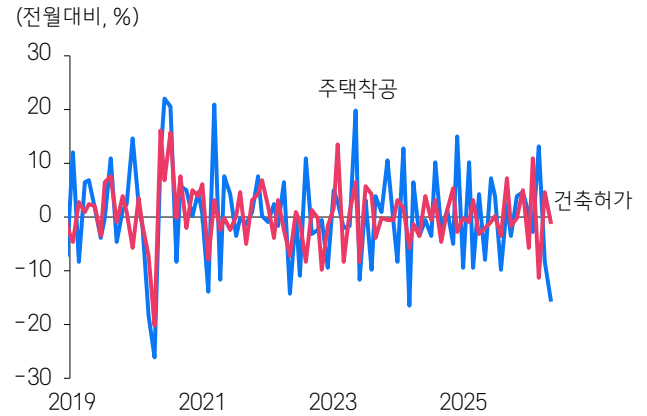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미국 CPI: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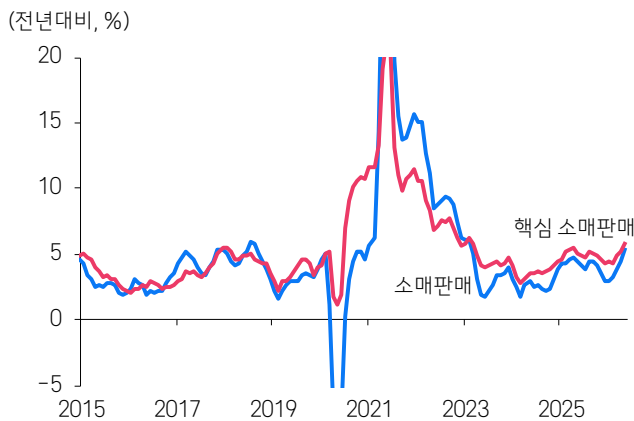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주택착공, 건축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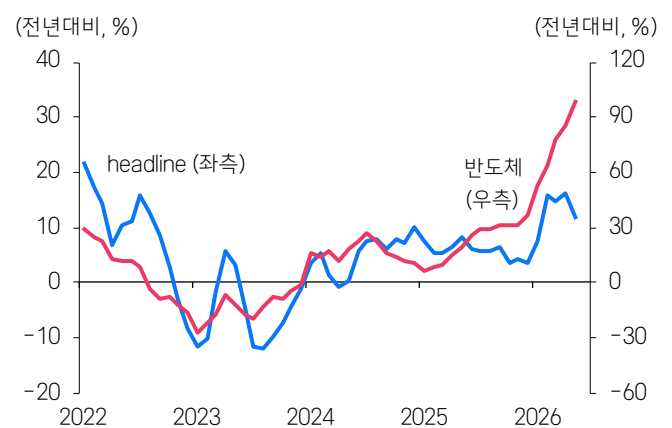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미국 전체 및 핵심 소매판매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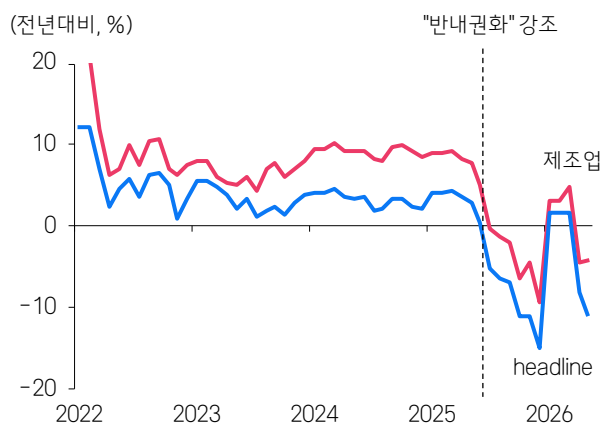
중국 수출 추이: 반도체 수출 빠른 속도로 증가



참고: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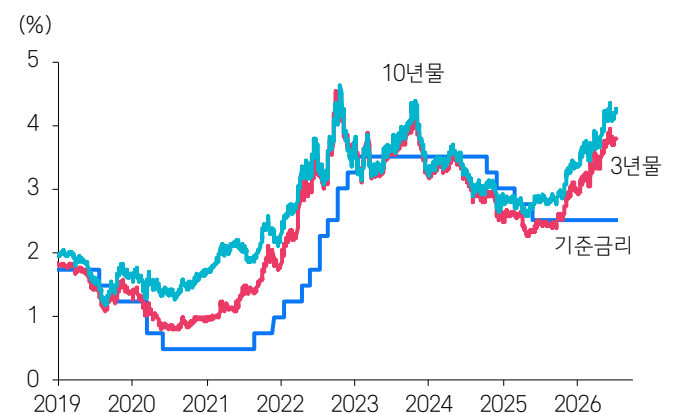
자료: 중국 해관총서, 삼성증권

중국 고정자산 투자 부진



참고: 당월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한국 기준금리 및 국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6월 ISM 서비스업 지수(6일)가 발표되었다. 6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4.0으로 전월(54.5)을 하회하면서, 미국 서비스업 모멘텀이 다소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견고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지수를 보면, 기업활동 지수와 신규주문 지수가 각각 55.4와 55.1로 전월(각각 57.7, 57.3) 대비 하락했고, 가격 지수도 67.7로 전월(71.3)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시사했다. 반면, 고용 지수는 51.2로 4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시장 둔화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최근 전월 및 시장예상을 하회한 주요 고용지표(ADP 민간고용, 비농업 고용 등) 결과 감안 시 당사는 노동시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 이번 주에는 5월 유로존 소매판매(6일), 5월 독일 산업생산(7일) 등이 발표되었다. 5월 유로존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0.2%, 전년대비 +1.6%를 기록해 시장 예상에 부합하였다. 이는 2분기 중동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소비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이 양호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외 부문의 판매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계 소비의 약세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5월 독일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9%를 기록하여 시장 예상(+0.1%)을 크게 웃돌았다. 생산량은 이란 전쟁 발발 이전인 2월 대비 1% 높은 수치이며, 중동 전쟁은 독일 제조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독일 생산량은 12% 낮은 수준에 그친다.

중국: 이번 주에는 6월 물가 지표(9일)가 발표되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0%를 기록하면서 5월(1.2%)과 시장 예상(1.1%, Bloomberg 기준)을 소폭 하회했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다. 중국 휘발유 가격은 5월 23.5%(이하 전년 대비)에서 6월 17.0%로 둔화했으며,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7%p에서 0.5%p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항공비도 전월 대비 -4.0%를 기록하며 유가 하락의 영향을 나타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는 1.0%로 5월 대비 0.1%p 하락했다. 서비스 가격이 0.8%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반도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상승도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면,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6월 생산자 물가는 4.1%로 상승 폭을 재차 확대했다(5월 3.9%, 시장 예상 4.1%). 비철금속 제련업(23.4%), IT 기기 제조업(3.3%) 등 일부 업종에서 공급측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진 영향이다. 다만, 석유 채굴업의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16.0%, 정유는 -3.1%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유가 하락의 영향이 나타났다.

일본: 이번 주에는 5월 현금급여(7일)가 발표되었다. 월간 근로통계 조사에서 5월 명목 현금급여는 전월 대비 -0.5%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3.2%로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그에 따라 실질 기준으로도 1.4%(이하 모두 전년 대비)로 5개월 연속 (+)를 기록하면서, 물가-임금 선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급여 항목별로는 기본급이 2.9% 상승하면서 전체 급여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그 외 특별급여(보너스) 및 초과근무수당도 각각 5.2%, 2.9% 상승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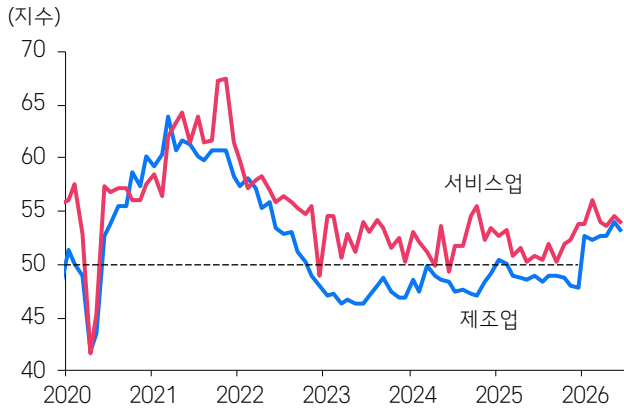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고
경제 지표								
미국	7월 6일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지수	54.0	54.0	54.5	In-line	•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시사
	7월 9일	6월 기존주택매매	전월 대비	1.0%	-2.4%	3.7%	Below	
유로존	7월 6일	7월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지수	-10.0	-3.1	-13.4	Above	
		5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3%	0.2%	-0.3%	Below	• 중동 불확실성에도 소비자 지출 양호
독일	7월 6일	5월 공장주문	전월 대비	1.1%	1.9%	-3.2%	Above	
	7월 7일	5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1%	0.9%	0.2%	Above	• 중동 전쟁의 영향은 제한적
중국	7월 9일	6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4.1%	4.1%	3.9%	In-line	• 일부 업종 공급측 요인으로 물가 상승
		6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1%	1.0%	1.2%	Below	•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6월 신규 위안화대출(누적)	십억 위안	11,060.0	-	9,110.0	-	
		6월 총 사회용자 규모(누적)	십억 위안	21,200.0	-	17,480.0	-	
		6월 M2	전년 대비	8.5%	-	8.6%	-	
일본	7월 7일	5월 명목 임금 상승률	전년 대비	3.4%	3.2%	3.6%	Below	• 물가-임금 선순환 지속 확인
	7월 10일	6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6.8%	7.1%	6.3%	Abov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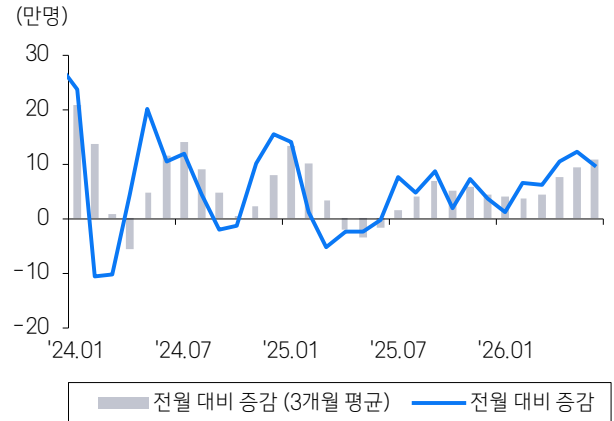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미국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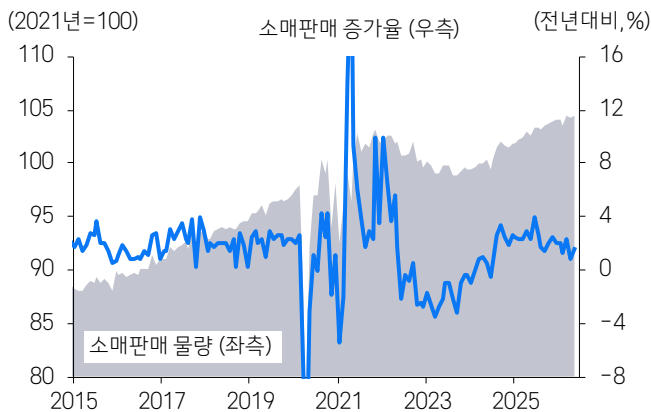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미국 ADP 민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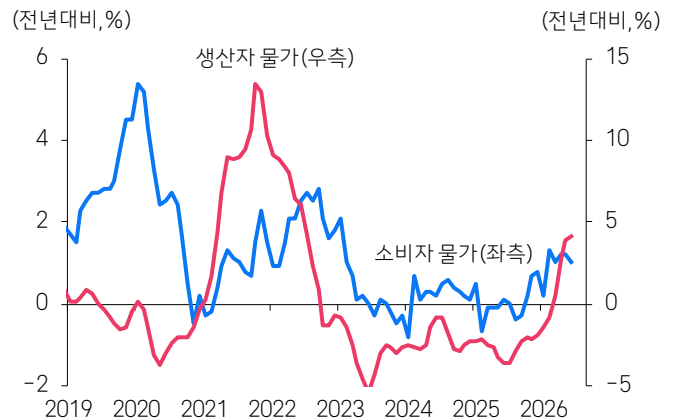
자료: Automatic Data Processing, Inc.

유로존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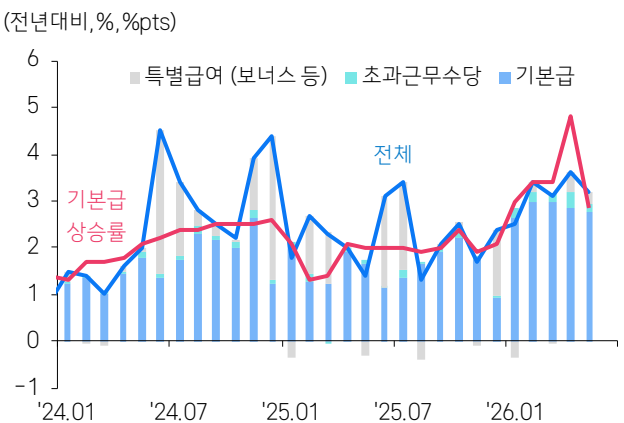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중국 물가지표 추이: 생산자 물가 vs. 소비자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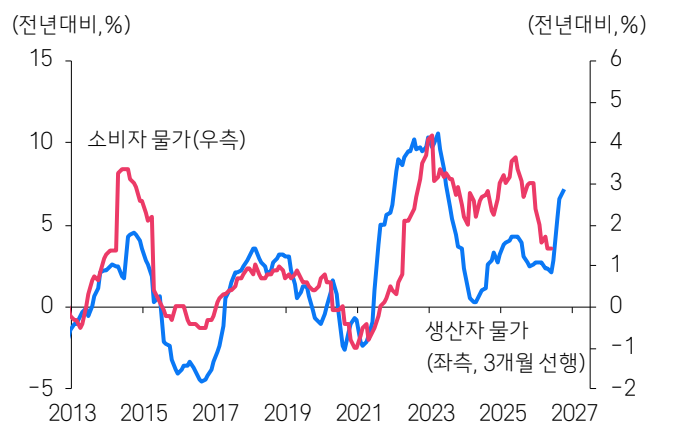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현금급여 항목별 breakdown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삼성증권

일본 물가지표 추이: 생산자 물가 vs. 소비자 물가



자료: 일본 통계국,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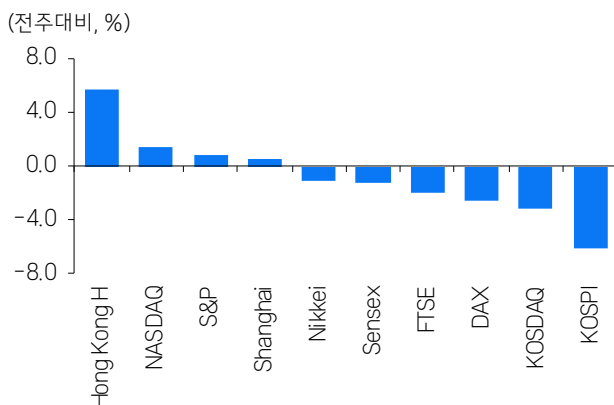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7월 10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락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반도체주 매도와 중등 리스크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코스피가 6.0%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미국 증시는 미국-이란 갈등 재고조로 주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유가가 급등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0.8%, 1.4% 상승했다. 유럽 증시는 에너지주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유로스톡스50은 -2.0%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100.9 전후에서 보합을 기록했다. 이번 주 6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견고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재차 고조된 점이 달러를 지지했으나, 6월 FOMC 의사록이 금융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상방을 제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상 의견이 다수는 아니었으며, 금리인상 의견을 낸 인사도 지난 회의에서 금리동결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중 엔화는 달러 대비 162엔 이상 약세를 기록한 후 현재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다. 이란 사태 이후 Fed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시장 기대가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의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기본 방침(하네부토) 초안에서 지난 해와 달리 재정 건전화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고 BOJ와의 긴밀한 공조가 강조된 영향이었다. 한편, 이번 주 달러 대비 원화는 1.5%, 파운드 0.7%, 유로 0.2%, 위안화와 엔화는 보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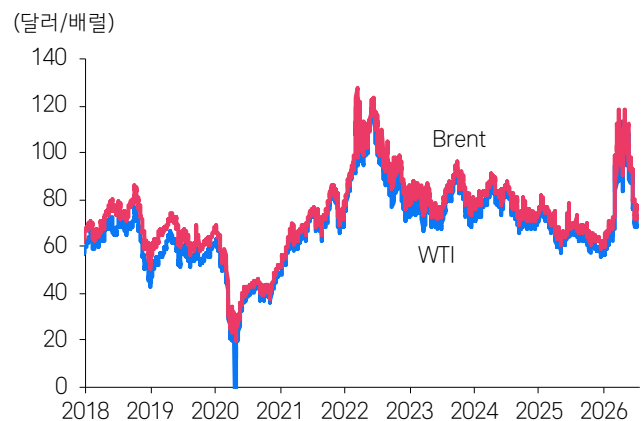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68.7에서 \$72.3으로, 브렌트는 \$72.1에서 \$76.5로 상승했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가 재차 부각된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전쟁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며 외교적 협상 여지도 남겨뒀다. 이후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발표하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인플레이션 및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7월 10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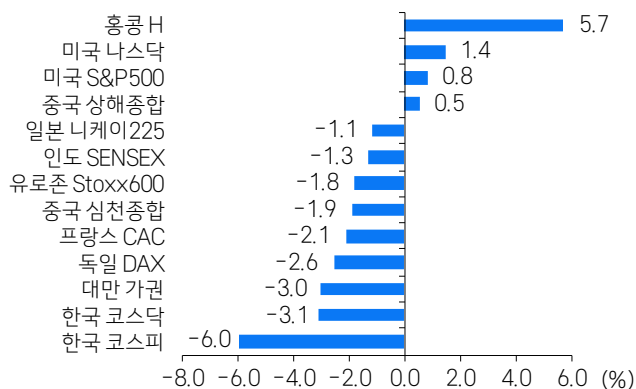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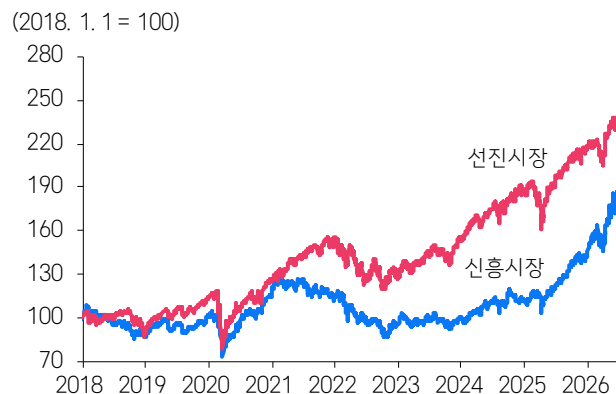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참고: 7월 10일 13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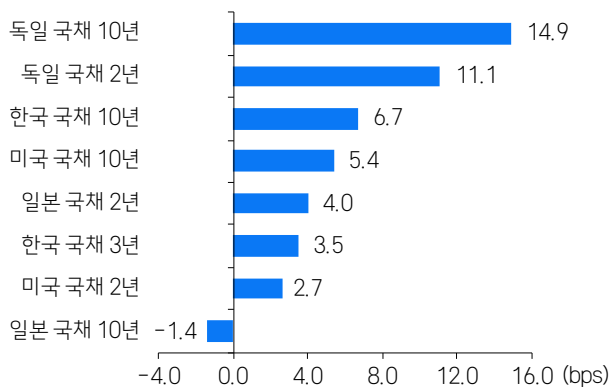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참고: 7월 10일 13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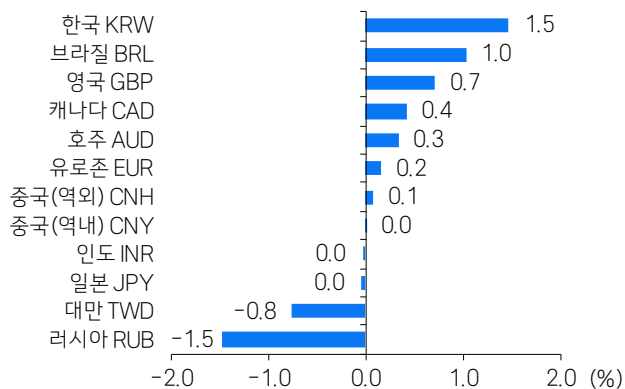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7월 10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변화 내용
				3개월	1년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0	(75)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6월 FOMC에서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 결정됨.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연내 금리 인상 의견이 9명(3개월전 0명)으로 대폭 증가해, 연내 동결 및 인하 의견 9명과 동수를 이룬 것. 이는 이번 인플레이션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 Fed는 올해 4Q headline과 core PCE 물가 전망을 각각 3.6%와 3.3%(기존 2.7%씩)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반면, '27년 4Q 전망치는 2.3%와 2.5%(기존 2.2%씩)로 소폭 상향에 그쳐, 내년 중 물가 정상화 전망이 여전히 FOMC내 컨센서스임을 시사
유로존	2.25	2.00	26.06.11	25	25	ECB,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으며, 유로존 성장 전망은 하향하고 물가 전망은 상향. ECB가 금리 인상으로 전환한 것은 가격 상승이 에너지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 외 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리 정해진 금리 경로는 없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다소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한국	2.50	2.75	25.05.29	0	0	한국은행,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통방문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신현승 총재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금리 인상 방향을 시사했으나 terminal rate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힘
일본	1.00	0.75	26.06.16	25	50	일본은행,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1.00%로 인상하되 국제 매입 축소는 중단함. 우에다 총재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물가의 선순환이 강화되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기자 회견에서 우치다 부총재도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은 2%를 향해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나, 2%를 상회할 수 있는 리스크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영국	3.75	4.00	25.12.18	0	(50)	BOE,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중앙은행은 이전 회의 후 CPI 상승률이 2.8%로 하락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내 물가 반등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향후 물가 전망 불확실성을 동결 이유로 언급
중국	1.40	1.50	25.05.08	0	0	중국 인민은행은 3월 양회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정책 금리 및 기준을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만, "사회적 종합적인 용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용자 비용을 낮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변경
기타 지역						
멕시코	6.50	6.75	26.05.07	(25)	(150)	멕시코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로 밝힌 지난 5월 회의 이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면서, 예상대로 '27년 2분기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3%에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인도	5.25	5.50	25.12.05	0	(25)	인도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측은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으며, FY27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9%에서 6.6%로 하향 조정
브라질	14.25	14.50	26.06.17	(50)	(75)	브라질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하고 있으나, 1분기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이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0	(900)	튀르키예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안정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지정학적 상황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상승률 5%를 달성하는 게 최우선임을 밝힘
인도네시아	5.75	5.50	26.06.18	100	2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상. 중앙은행 총재는 루피아화 약세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결정을 밝힘
호주	4.35	4.10	26.05.05	25	50	호주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올해 총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 및 유가 하락의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스웨덴	1.75	2.00	25.10.01	0	(25)	스웨덴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공급 차질 지속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및 '27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스위스	0.00	0.25	25.06.19	0	0	스위스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중동 분쟁으로 인해 원자재 및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지 않았으며 1분기 GDP 역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
러시아	14.25	14.50	26.06.19	(75)	(575)	러시아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단행. 중앙은행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따른 연료 생산량 감소와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고려해 인하폭을 축소했다고 밝힘
뉴질랜드	2.50	2.25	26.07.08	25	(75)	뉴질랜드 중앙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상. 중앙은행측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돌고 경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물가를 중기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낮출 것임을 밝힘
캐나다	2.25	2.50	25.10.29	0	(50)	캐나다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중동 분쟁 지속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정을 밝힘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7월 3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8,088	8,051	7,656	7,247	7,292	7,631	(5.6)	(1.3)	30.3	66.4	139.7	166.1	202.7	81.1
미국 S&P 500	7,483	7,537	7,504	7,483	7,544	7,544	0.8	3.8	10.7	8.3	20.1	33.9	71.1	10.2
일본 NIKKEI 225	69,744	69,738	68,257	66,819	67,744	68,944	(1.1)	7.4	21.1	32.7	73.9	64.8	114.2	37.0
영국 FTSE	10,679	10,652	10,666	10,489	10,472	10,472	(1.9)	2.1	(1.2)	3.4	16.7	27.8	44.0	5.4
독일 DAX	25,779	25,818	25,465	24,897	25,118	25,118	(2.6)	3.8	5.5	(0.6)	2.7	36.5	60.3	2.6
중국 상해종합	4,044	4,041	3,990	3,971	4,037	4,062	0.5	1.7	1.9	(1.4)	15.7	38.2	26.8	2.3
홍콩 H	7,700	7,812	7,770	8,084	7,997	8,148	5.8	(2.1)	(5.9)	(10.0)	(6.0)	30.3	30.7	(8.6)
인도 Sensex	77,764	78,285	78,181	76,504	76,742	76,742	(1.3)	3.7	(1.0)	(8.2)	(7.8)	(4.0)	17.4	(9.9)
인도네시아 JCI	5,876	5,916	5,986	5,873	5,912	5,935	1.0	0.5	(20.4)	(33.6)	(15.3)	(18.6)	(11.8)	(31.4)
브라질 iBovespa	174,070	172,448	172,021	170,653	172,742	172,742	(0.8)	2.4	(12.5)	5.7	26.3	35.8	46.5	7.2
MSCI World (USD)	4,842	4,865	4,843	4,812	4,851	4,851	0.2	3.6	8.4	7.5	19.4	34.3	65.5	9.5
MSCIEM (USD)	1,721	1,721	1,687	1,678	1,676	1,676	(2.7)	0.5	8.3	15.4	36.1	50.8	70.7	19.2
채권금리 (%)														
한국 국채 3년	3.75	3.77	3.78	3.78	3.78	3.78	3	(10)	42	84	135	66	(2)	83
한국 국채 10년	4.20	4.21	4.22	4.25	4.26	4.26	7	(0)	58	88	145	107	40	88
미국 국채 2년	4.14	4.11	4.18	4.22	4.18	4.17	3	2	37	63	29	(45)	(69)	69
미국 국채 10년	4.48	4.47	4.55	4.58	4.55	4.54	6	(1)	22	37	19	26	55	37
일본 국채 10년	2.79	2.83	2.86	2.87	2.88	2.78	(1)	9	34	68	127	169	231	71
독일 국채 10년	2.94	2.95	2.99	3.09	3.08	3.08	15	1	3	22	38	55	44	23
중국 국채 10년	1.74	1.74	1.74	1.73	1.73	1.73	(1)	(1)	(8)	(14)	7	(54)	(91)	(12)
인도 국채 10년	6.71	6.69	6.70	6.76	6.75	6.74	2	(20)	(18)	10	42	(24)	(40)	15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7.14	7.13	7.19	7.29	7.29	7.25	11	(10)	68	111	67	19	99	118
브라질 국채 10년	14.50	14.40	14.50	14.55	14.49	14.49	(1)	(32)	84	79	62	283	380	75
JPM EMBI Global	219.9	219.2	212.6	219.7	218.8	218.8	(1)	1	(12)	(11)	(64)	(124)	(148)	(13)
장단기 금리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35	0.36	0.37	0.36	0.37	0.37	3	(4)	(15)	(26)	(10)	71	124	(32)
일본 국채 10년-2년	1.39	1.44	1.45	1.44	1.44	1.34	(5)	8	31	40	60	60	85	45
독일 국채 10년-2년	0.40	0.40	0.41	0.38	0.44	0.44	4	8	(2)	(32)	(38)	80	109	(30)
중국 국채 10년-2년	0.45	0.45	0.44	0.44	0.44	0.44	(1)	(1)	(1)	3	19	0	3	(1)
한국 국채 10년-3년	0.45	0.44	0.44	0.47	0.48	0.48	3	9	15	3	10	40	41	5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7월 3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42.5	42.5	42.5	42.5	42.5	42.5	0	0	3	14	4	5	11	13
일본 (5년)	16.6	16.6	16.6	16.6	16.6	16.6	(0)	(0)	(0)	2	4	2	5	2
독일 (5년)	22.6	22.4	22.3	22.6	22.6	22.6	(0)	(1)	(10)	2	(3)	(13)	(11)	1
중국 (5년)	3.5	3.5	3.5	3.5	3.5	3.5	(0)	(1)	(1)	(0)	(2)	(3)	(7)	(0)
한국 (5년)	37.0	37.1	36.2	36.6	36.6	36.6	(0)	(4)	(12)	(4)	(11)	(22)	(28)	(7)
인도네시아 (5년)	89.5	89.8	89.5	91.8	91.8	91.8	2	(5)	(2)	22	17	19	3	24
브라질 (5년)	124.9	125.1	126.6	126.2	126.2	126.2	1	2	2	(11)	(22)	(21)	(55)	(12)
멕시코 (5년)	86.2	84.5	85.4	85.9	85.9	85.9	(0)	1	(3)	(4)	(15)	(15)	(21)	(5)
상품가격														
CRB지수	353.0	362.3	363.1	367.0	368.5	368.5	4.4	(1.3)	(0.2)	22.2	22.7	27.2	39.4	23.3
WTI (달러/배럴)	68.7	68.6	70.4	73.5	72.1	72.3	5.2	(19.7)	(25.2)	22.2	8.5	(12.0)	(1.0)	25.8
두바이유 (달러/배럴)	64.5	65.1	67.4	70.5	69.2	69.2	7.3	(23.0)	(31.3)	13.5	(0.8)	(18.9)	(10.8)	11.6
LME 구리 (달러/톤)	13,367	13,404	13,366	13,166	13,490	13,490	0.9	(0.2)	5.0	3.8	39.1	36.2	61.1	8.6
금 (달러/oz)	4,177	4,165	4,106	4,077	4,124	4,122	(1.3)	1.2	(13.2)	(8.6)	24.0	73.8	114.1	(4.6)
은 (달러/oz)	62.42	62.05	59.98	58.30	59.96	60.37	(3.3)	(4.7)	(20.4)	(24.4)	63.2	95.9	161.0	(15.7)
옥수수 (센트/부셸)	425.0	440.8	442.5	434.8	427.8	427.8	0.6	2.1	(3.0)	(4.0)	5.0	6.1	(25.1)	(2.8)
소맥 (센트/부셸)	590.5	606.0	609.3	599.5	611.3	611.3	3.5	4.0	7.0	18.2	11.1	12.5	(3.9)	20.6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530	1,532	1,516	1,505	1,508	1,509	1.4	0.8	(1.7)	(3.3)	(9.0)	(8.3)	(13.4)	(4.6)
일본 엔화	161.34	162.09	162.10	162.59	162.38	161.43	(0.1)	(0.5)	(1.3)	(2.2)	(9.4)	0.2	(12.5)	(2.9)
유로화	1.144	1.144	1.141	1.142	1.143	1.145	0.1	(0.7)	(2.3)	(1.6)	(2.1)	5.8	4.1	(2.5)
중국 위안화 (역내)	6.779	6.795	6.796	6.806	6.792	6.779	(0.0)	(0.1)	0.7	2.9	5.9	7.3	6.6	3.1
중국 위안화 (역외)	6.785	6.794	6.804	6.806	6.796	6.781	0.1	0.0	0.7	2.9	5.9	7.5	6.6	2.9
인도 루피화	95.22	95.40	94.97	95.56	95.39	95.23	(0.0)	0.0	(2.6)	(5.3)	(10.1)	(12.3)	(13.3)	(5.5)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7,954	17,995	17,982	17,999	18,084	18,060	(0.6)	(0.6)	(5.3)	(6.9)	(10.2)	(10.1)	(15.9)	(7.6)
브라질 헤알화	5.169	5.126	5.159	5.151	5.116	5.116	1.0	1.4	(2.2)	4.9	8.1	5.9	(4.2)	7.0
달러 인덱스	100.86	100.85	101.02	100.99	100.90	100.63	(0.2)	0.7	2.0	1.5	3.1	(4.2)	(1.3)	2.3
아시아 달러 인덱스	91.5	91.4	91.6	91.4	91.5	91.7	0.1	(0.2)	(0.9)	(0.4)	(1.1)	1.7	(0.1)	(0.6)
JPM 이머징 통화지수	46.81	46.80	46.73	46.59	46.83	46.83	0.1	(0.6)	(1.0)	0.4	1.6	1.0	(4.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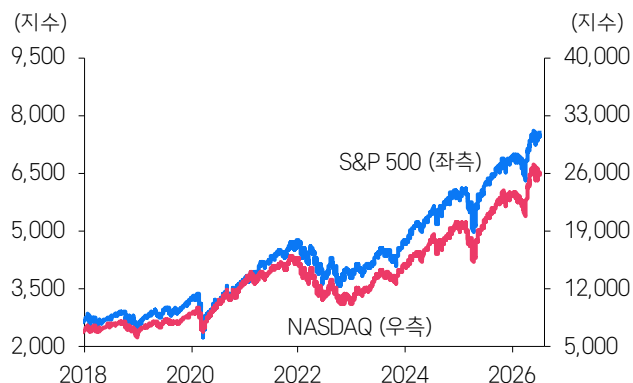
참고: 7월 10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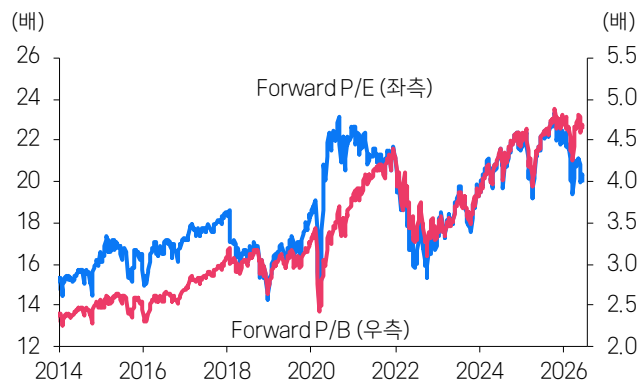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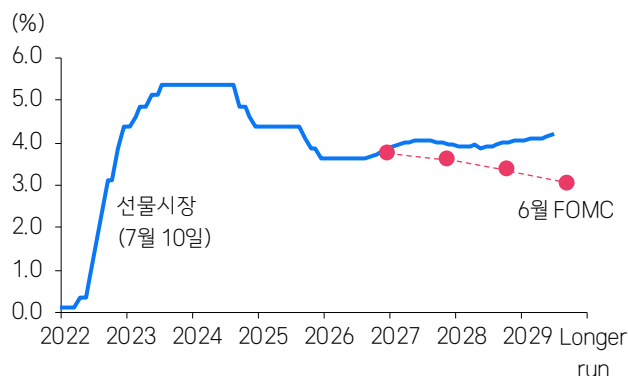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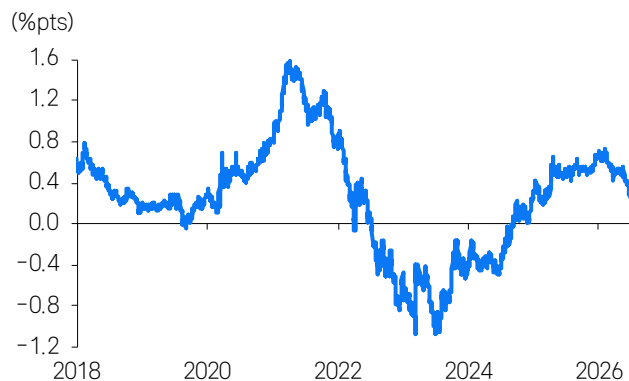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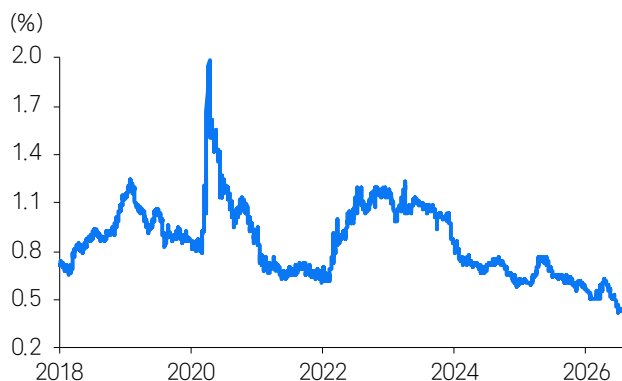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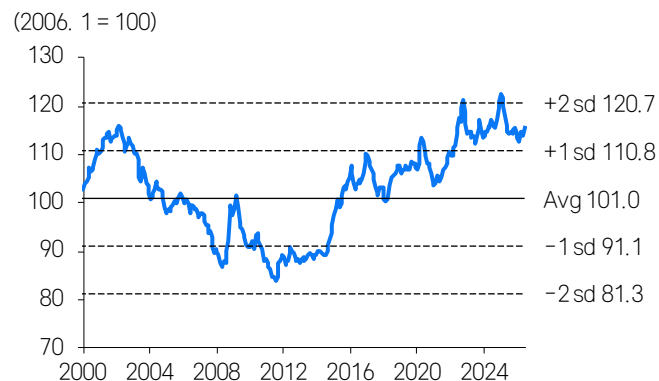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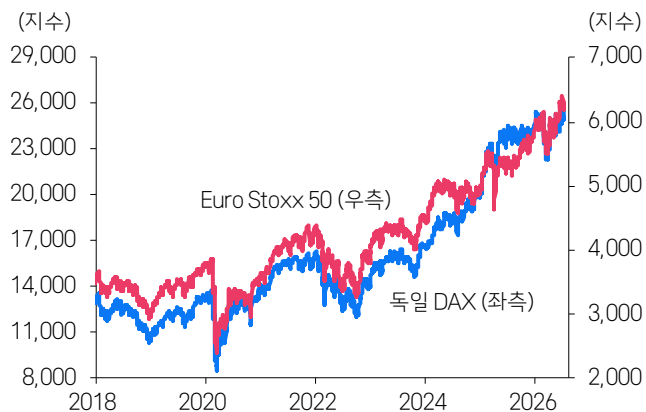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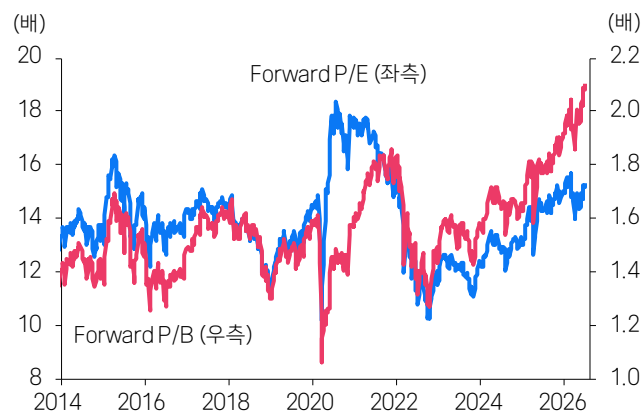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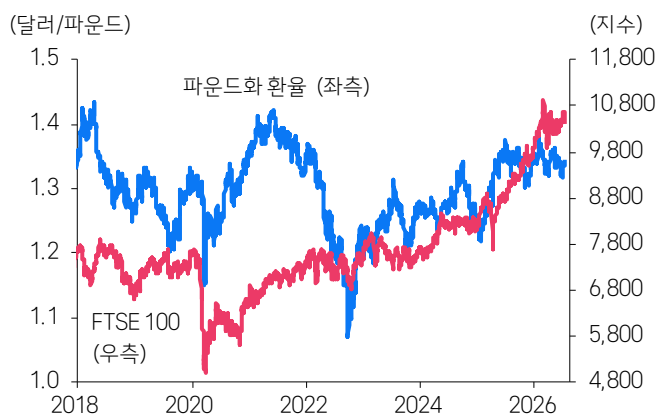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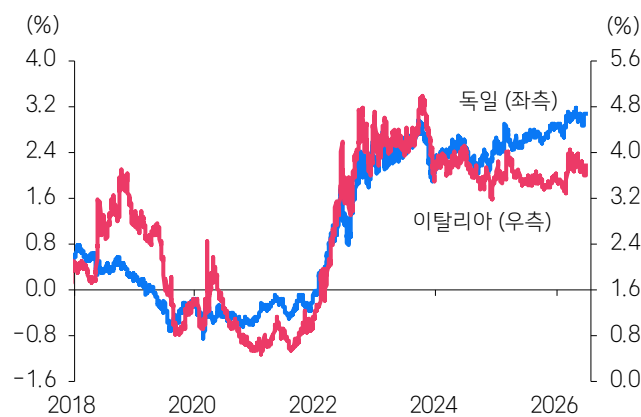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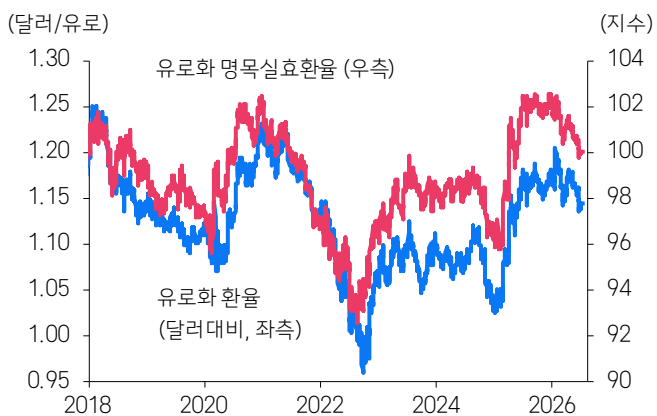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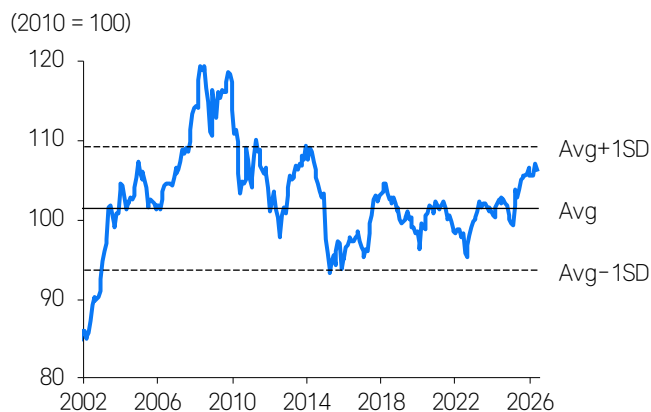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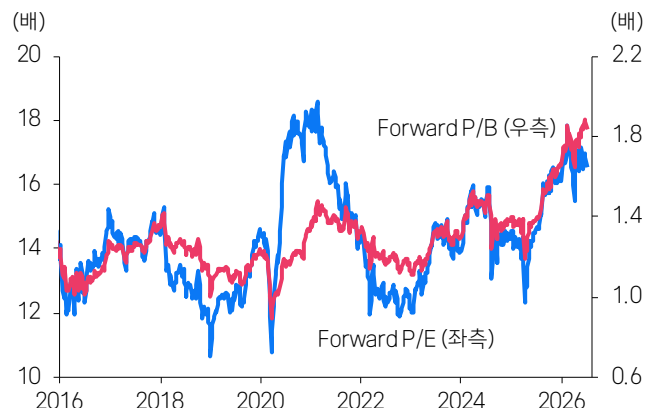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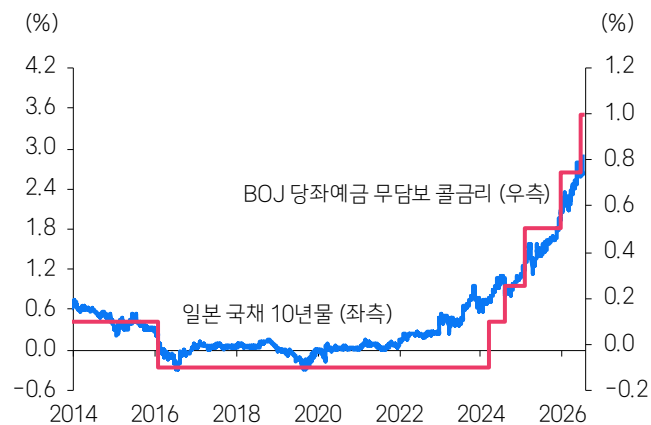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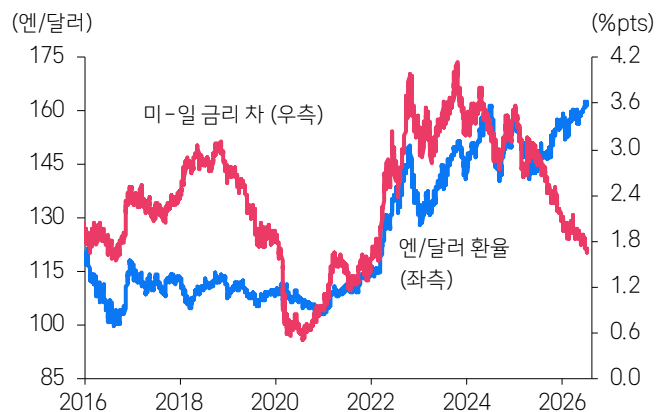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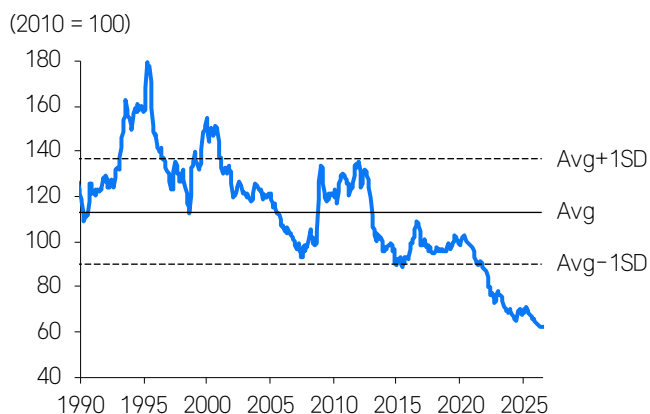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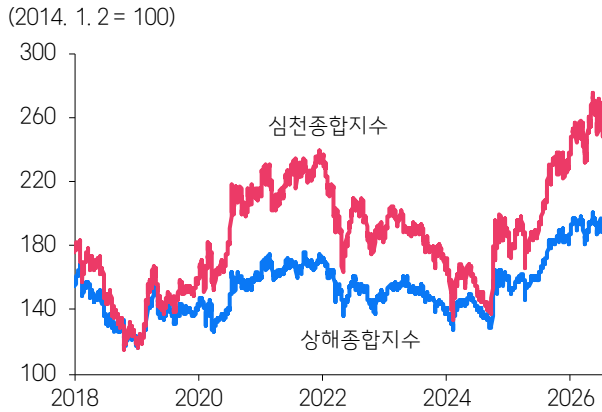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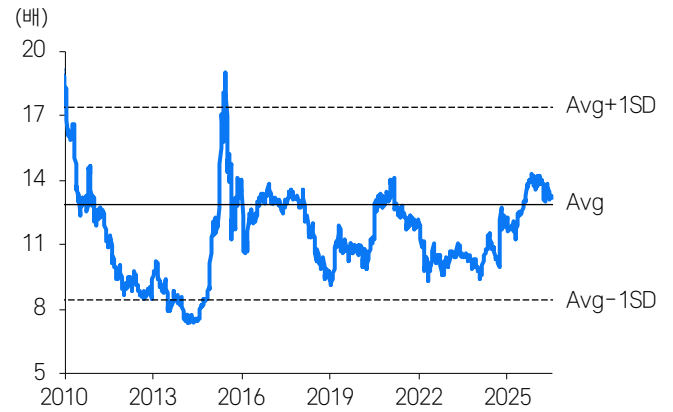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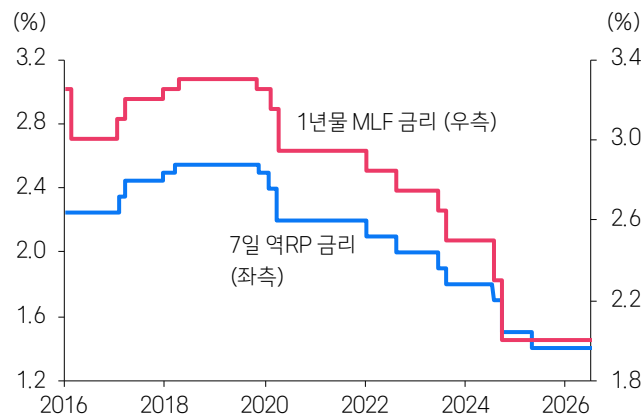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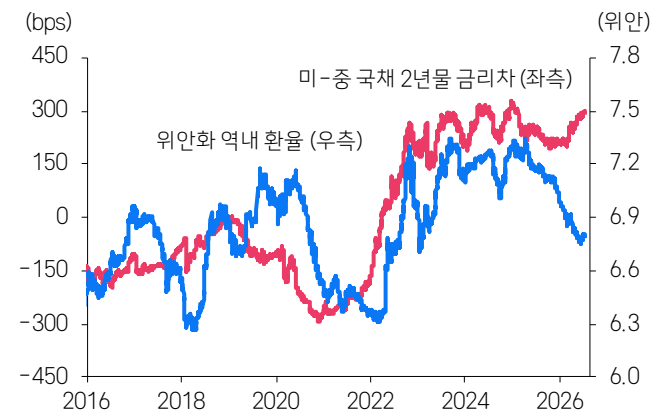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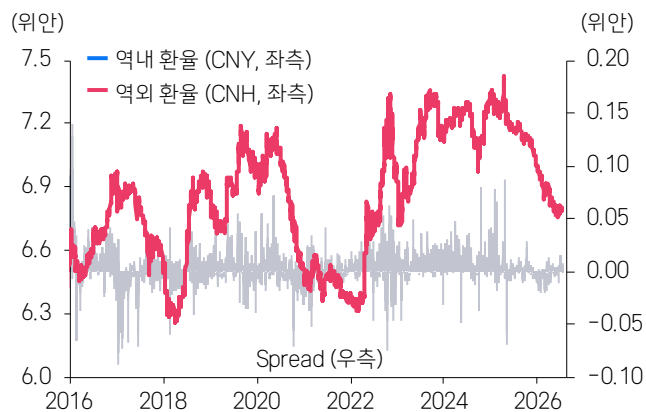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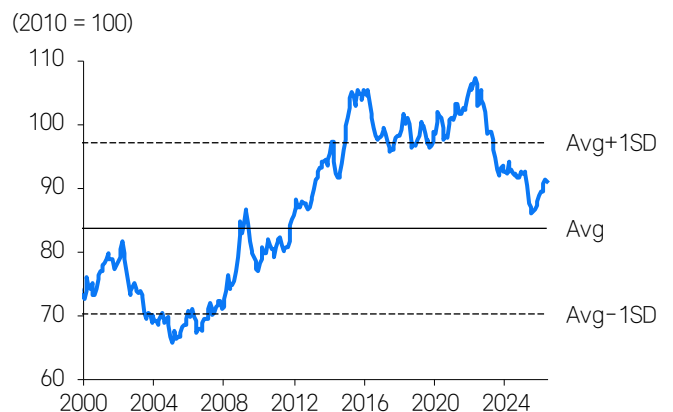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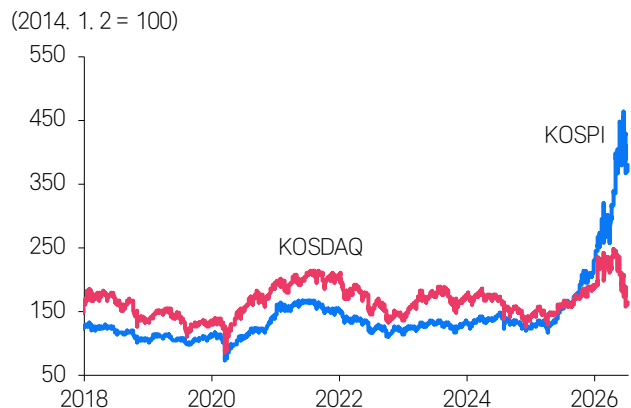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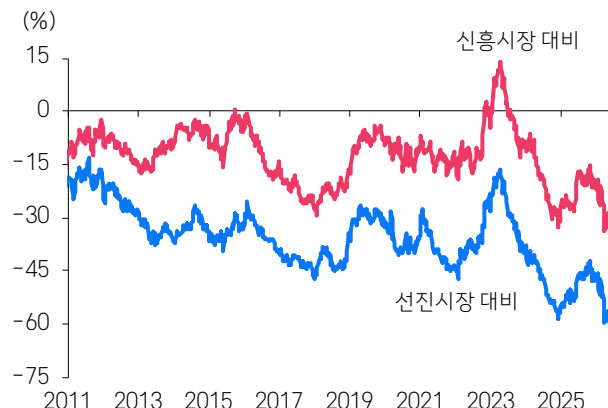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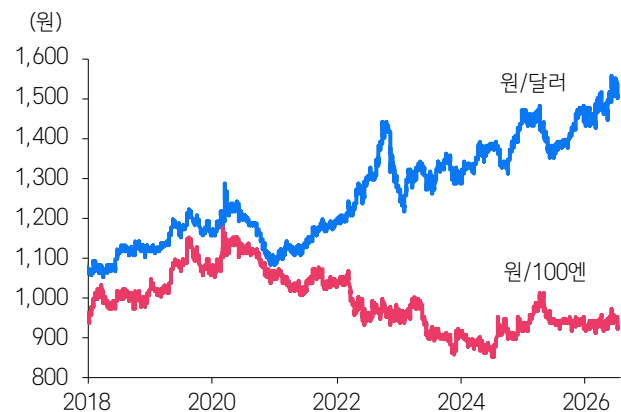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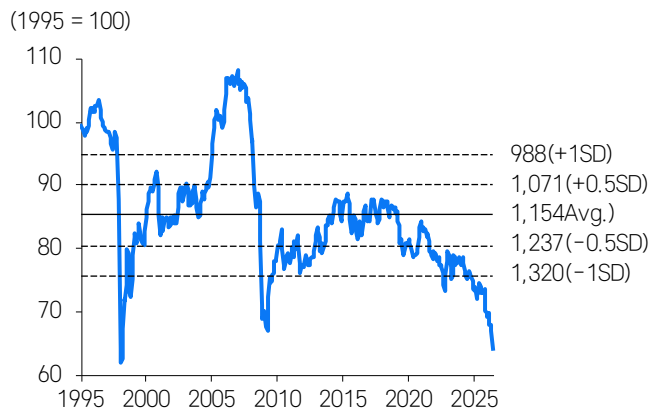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자료: 삼성증권

»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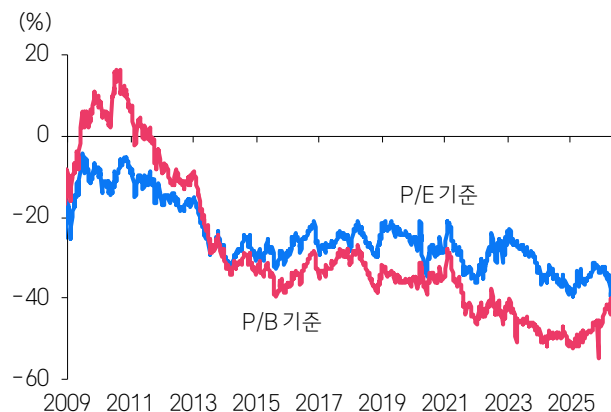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참고: MSCI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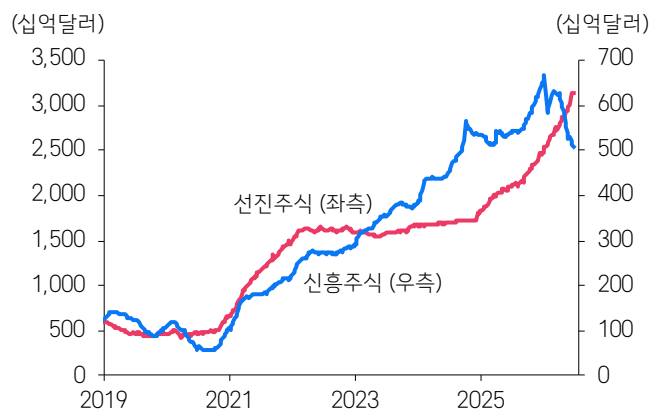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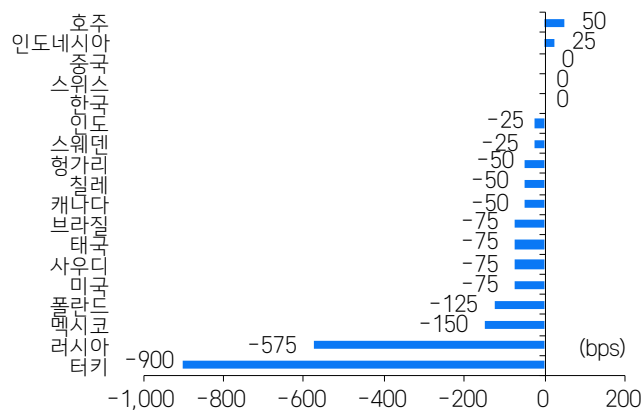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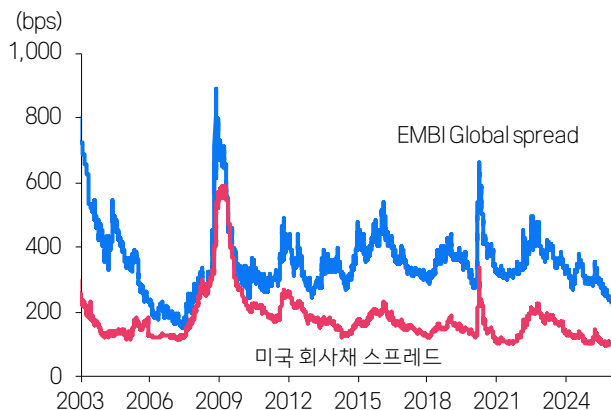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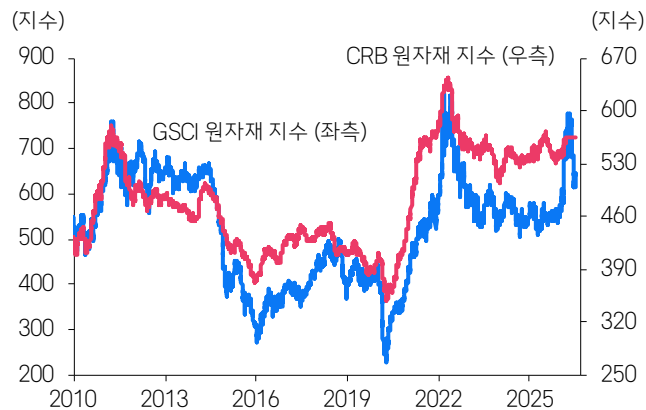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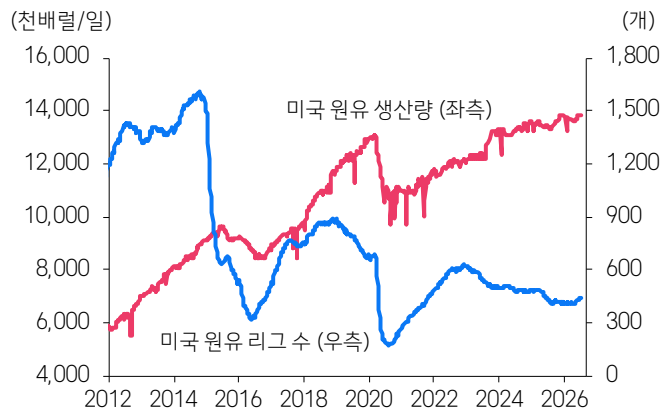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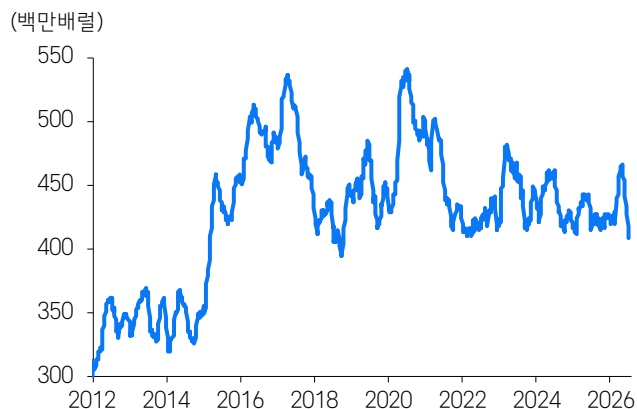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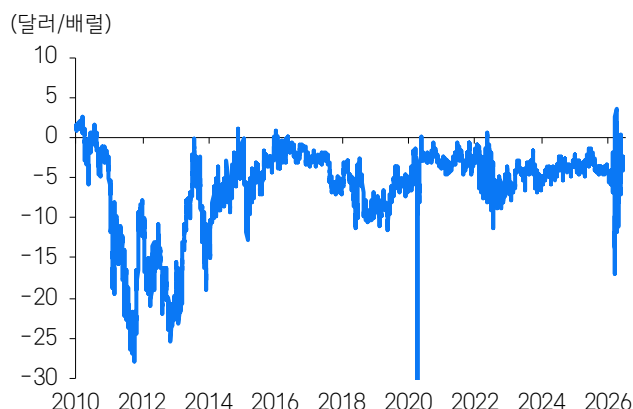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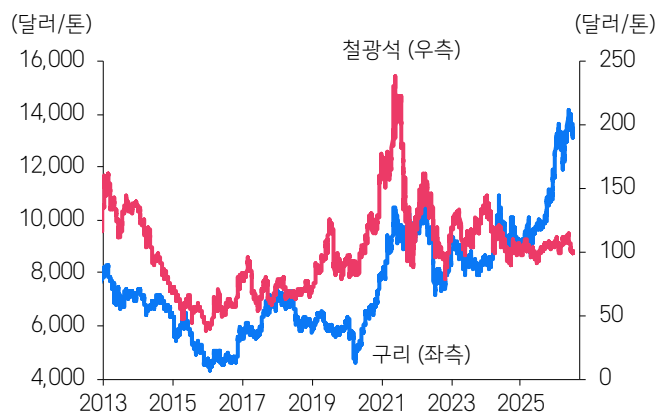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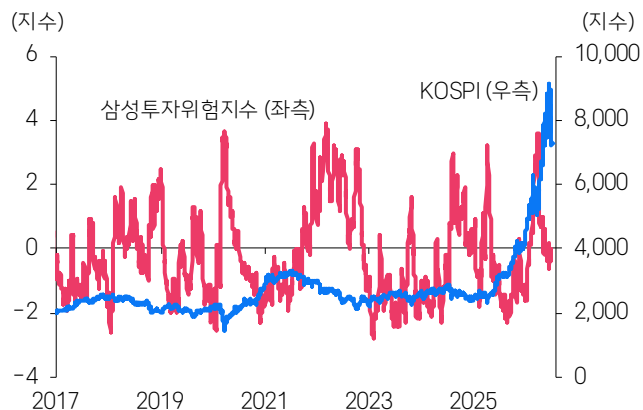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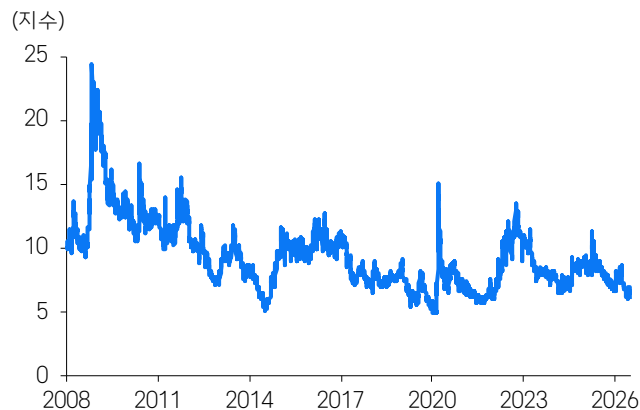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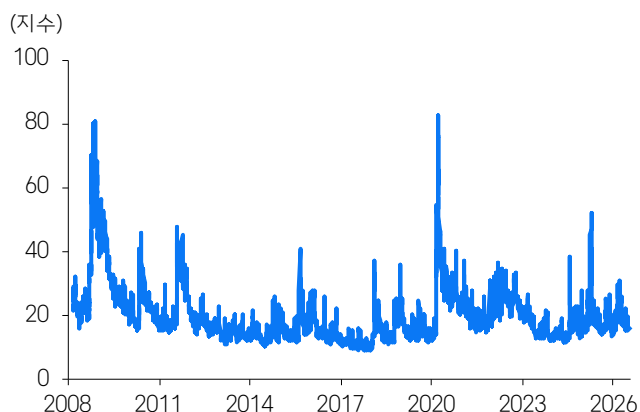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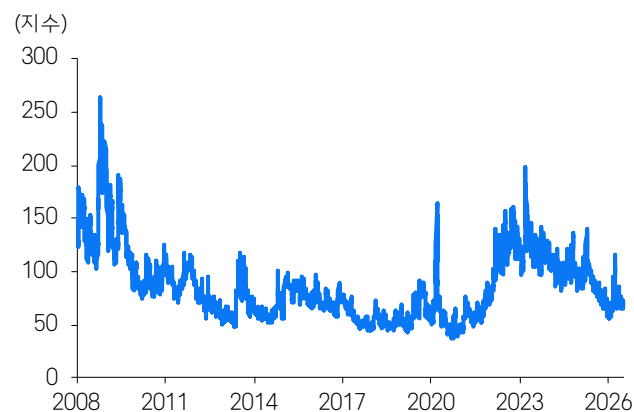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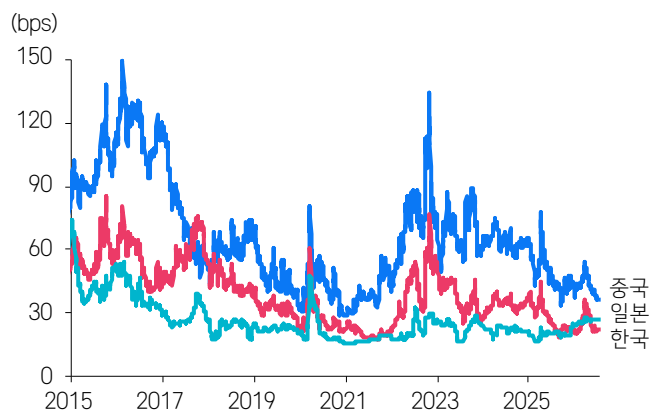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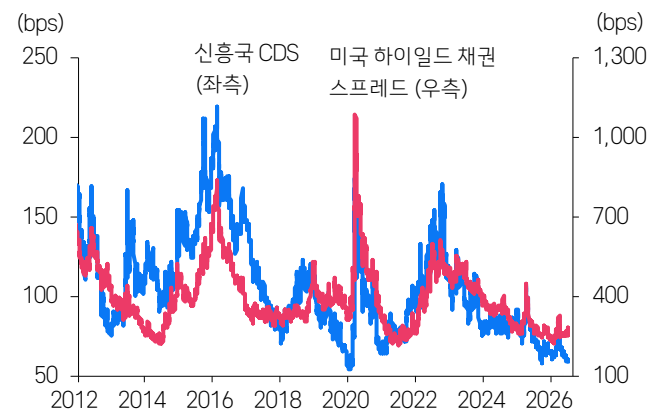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한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